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특강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토론·설득 오바마에 배워라”

“문민정부시절 1급 정통관료들 사이에 ‘가신들 때문에 1급이 깨끗이 됐다’는 자고의 말들이 나돌았다. 이들은 평생을 거쳐 1급에 올랐지만, 가신들은 하루아침에 1급을 뛰쳤기 때문이다. 관직이 정치화되면서 관료사회는 무너졌고, 국가 공공성은 붕괴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5일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특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능력의 핵심으로 ▲비전제시 능력 ▲정책 능력 ▲관리 능력 ▲인사 ▲외교능력 ▲복합관리 능력 등 여섯 가지를 들었다. 이를 떠받치는 소양으로는 ‘투철한 공인의식’과 ‘민주적 태도’를 제시했다.

그는 공공성이 사라지면 공인의식이 사

공공·민주적 리더십 강조

YS-DJ는 비민주 제왕적

노무현, 386 소수에 힘쓸려

이명박, 재벌 편향적 CEO

라고 가산주의(家產主義·공공영역의 사유화) 태도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정실·폐거리 인사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염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자신의 연구와 국정 경험을 토대로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진단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혁신했으나 리더십은 비민주적·제왕적이었다고 밝혔다. 성장하고 배웠던 시대가 권위주의적 사회였던 탓이라고 해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다가 대통령직마저 부숴버린 경우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정을 ‘386’ 소수에게 의존, 편협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CEO마인드’에 사로잡혔다고 진단했다. 생산성·효율성만 내세우다보니 국정의 흐름이 자본권력에 편향된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왜 끊임없이 야당을 만나 설득하고 토론하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했다. 이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이 급속도로 팽창했고, 지금은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국가권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이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15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명했다. 그는 자본권력의 탐욕을 제지하지 못하면 자유를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신드롬’은 새 정치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안철수 멘토’로 나선 대 대해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양당구조는 철근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기득권 구조로 웬만해선 깨지 못한다”며 “안철수에 열광한 젊은이들을 조직화하면 이를 상당부분 맡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광주와 광주시민의 역할에 대해 “광주의 생각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척도”라며 “당월동이라는 역사에 만 깔매이지 말고 외부의 공격도 웃어 넘기며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했다. 이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이 급속도로 팽창했고, 지금은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국가권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이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 “호남 살리자” 광주·전남 인사들 뭉쳤다

‘광주·전남 미래포럼’ 서울서 발기인 모임… 내달 창립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공정한 지역인재 등용 기반 조성을 위해 호남 출신 전직 중앙정부 관료와 기업인,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성, 청년계 인사들이 하나로 뭉친 ‘광주·전남미래포럼(가칭)’(이하 포럼)이 다음달 창립한다.

포럼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모임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들어갔다.

포럼은 국가발전 도모를 위한 균형적·건설적인 호남지역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미래발전 기반 조성을 튼튼히 한 뒤 전북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호남의 미래발

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특히 이 포럼은 정치적인 색깔과 정당을 배제하고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과 고향발전을 순수하게 고민하는 모임으로 모여 호남의 인사차별과 낙후성을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발기인으로는 관계와 법조계에서 김양균 전 현법재판관, 이웅훈 전 대법원장, 손수익 전 교통부장관, 김승규 전 국정원장, 김정길 전 법무부장관, 김성훈·한갑수 전 농림수산부장관,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등이 이들을 올렸다. 학계에서는 지병문 전 남대총장과 서재홍 조선대총장, 이건철 전 남발전

연구원장,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경제계에서는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장, 윤홍근 BBQ회장, 김장학 광주은행장, 문화계 및 시민사회 인사로는 김정옥 예술원 회장, 허철경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장, 문국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종범 한화이글스 코치 등 모두 94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준비위원회에는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재철 전 남도부지사, 이수행 도시미래연구 대표 등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말께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포럼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시로 회원 간담회를 열어 호남지역의 인사 및 예산 등 애로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위험천만’ 영산강 자전거도로

교통안전공단, 18개 문제점 22개 권고사항 지적

정부가 2500억원을 투입, 조성한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자전거 도로 곳곳에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고려해 시급한 조치가 이전거도로로 교자하는 구간에 대한 표지도 미흡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후미 민주당 의원이 16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4대강 자전거 도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영산강 자전거 도로에서는 18개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22개의 권고 사항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는 담양 관광 호텔 인근 자전거

길의 경우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한 ‘차량진입방지봉’이 자전거도로 중간에 설치돼 자전거 이용자들의 추돌 우려되고 자동차와 자전거도로로 교자하는 구간에 대한 표지도 미흡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나주시 왕곡면 화정마을 인근 자전거 길은 내리막 구간임에도 전신주가 도로에 인접해 추돌 가능성성이 상존하는가 하면, 담양군 봉산면 양지교 인근 구간에서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데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알려줄만한 시설이 부족해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양군 인근은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안군 일로읍 무영대교 인근 도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 경계선 표시가 미흡해 충돌 위험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자가 자전거 도로에 인접 설치돼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조명이 없는 굽은 도로로 야간 주행 시 도로 이탈 우려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번 개관된 교통안전공단 점검 결과가 영산강 자전거길 130km 구간 중 30~40%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로, 향후 전 구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전남 교육교부금 5년새 1조3천억 감소

정부 감세정책 영향… 지방채 채무잔액은 2300억원 급증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 최근 5년간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금 감소로 시도교육청 재정이 힘들어지면서 지방재 발행까지 늘어나 이로 인한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채무잔액이 5년 새 2300억원까지 늘어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감세정책에 따른 지자체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은 13조6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 경우 이 기간 모두 4520억원의 교부금이 줄었다.

전남은 감소분 총액이 무려 9328억원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교부금 감소로 지방재정이 어려워 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 발행을 늘리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 채무잔액이 14억9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말 706억원까지 늘었으며 올해는 9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도 2008년 채무잔액이 전혀 없었으나 교부금이 크게 줄면서 2013년 현재 채무잔액이 145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9일 순천서 새마을대회

201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오는 19일부터 이를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로 중앙과 지방을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치르는 이 대회에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등 6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9일 전야제와 20일 본행사로 나눠 치러진다.

전야제는 가수초정 등 문화예술 공연, 본행사는 지역 새마을회 지도자와 외국 봉사 새마을지도자 소개, 새마을인 다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새마을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순천에서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 전남도새마을회가 중앙 회에 순천 유치를 건의해 이뤄졌다”며 “대회 참석자들은 단체로 정원박람회도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지기 eijkim@

##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여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핫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i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전화 | 1899-3975 H.P 010-3598-7080